



소화기내과

Gastroenterology

용종절제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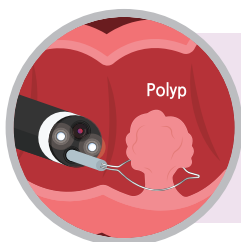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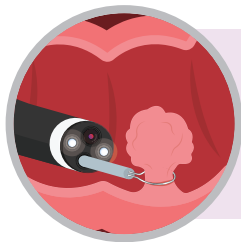
용종절제술이란?

위/대장 폴립은 대장에 발생하는 양성종양(혹)으로 그 자체는 해롭지 않지만 방치하면 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내시경을 통하여 폴립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처음 검사 시 바로 제거하기도 하고, 조직검사를 시행한 뒤 2차적으로 제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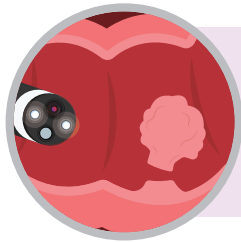
폴립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내시경을 통해 올가미를 넣고 폴립의 목에 해당하는 부위를 조여 맨 다음 전기를 통하여 잘라냅니다. 잘라낸 폴립은 회수한 다음 현미경으로 자세히 관찰하여 어떤 종류의 폴립인지 알아봅니다.



폴립 제거를 위해 내시경을 통해 올가미를 넣습니다.



내시경으로 폴립의 목에 해당하는 부위에 조여 맵니다.



전기로 폴립을 잘라내고 현미경으로 어떤 종류의 폴립인지 알아봅니다.



용종절제술 합병증

용종절제술은 내시경 검사에 따른 합병증이 매우 드물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천공은 일반적인 진단내시경 검사에서 0.3~0.4%, 용종절제술을 할 때 1% 미만에서 발생합니다. 출혈은 진단 검사에서는 거의 드물고 폴립절제술을 할 때 약 2.5% 빈도로 발생합니다.

시술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부득이하게 시술 방법이 변경되거나 시술 범위가 추가될 경우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추가로 설명하고 필요 시 수술이나 입원을 해야 합니다.

검사 및 시술 후 발생한 증상에 대한 문의사항은 주간에는 내시경 센터로, 야간·주말에는 응급실로 방문해야 합니다.



추적관찰은 어떻게 하나요?

- 일주일 뒤 조직검사를 외래에서 확인합니다.
- 결과가 선종인 경우에는 2년 뒤 추적관찰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톱니모양 용종이거나 개수가 많은 경우에는 1년 뒤 추적관찰을 권장합니다.
- 과형성 용종일 경우에는 4~5년 뒤 추적관찰이 가능합니다.





대장내시경 검사 준비

1 단계 아스피린 등 출혈성 경향이 있는 약물은 5일 전부터 중단하기 바랍니다. 깨끗한 대장청결을 위해서 검사 3일 전부터 씨가 있는 과일(참외, 포도, 수박 등), 콩, 버섯과 김치 등 채소 및 김, 미역 등 해조류를 금합니다.

2 단계 검사 전날 아침과 점심, 저녁은 죽으로 드시고, 저녁은 6시 전에 드시기 바랍니다.

3 단계 오전에 검사가 예약되신 분은 전날 저녁 6~8시에 장정결제 절반을 복용하고, 검사 당일 오전 4~6시 사이에 나머지 절반을 복용하면 됩니다.

4 단계 오후에 검사가 예약되신 분은 당일 오전 6~9시 사이에 장정결제를 모두 복용하면 됩니다.



용종 예방하려면?

위암으로 진행되는 위험인자

헬리코박터 감염, 상한 음식, 젓갈과 같이 소금에 절인 음식, 질산염이 발색제로 쓰이는 햄, 소시지, 베이컨 등 가공육, 튀김 요리
지방을 많이 포함한 음식, 소고기, 돼지고기와 같은 붉은색 고기
술, 담배, 비만, 유전적 요인

대장암으로 진행되는 위험요인

고지방/저섬유소 식이, 소고기, 돼지고기와 같은 붉은색 고기
비만, 굵거나 튀긴 고기나 생선, 술, 담배, 당뇨병

대장암 예방 효과

식이섬유가 많이 포함된 음식, 당근과 같은 카로틴 함유 음식
녹황색 채소, 운동, 적절한 체중, 비타민 C, 비타민 E, 비타민 D
칼슘, 오메가-3, 셀레늄





1899-0001

의정부

평일 08:00~17:00

대전/노원/강남

평일 08:30~18:00 토요일 08:30~12:30

www.emc.ac.kr

환자가 필요로 하는 곳엔 ‘을지’가 있습니다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대전을지대학교병원

노원을지대학교병원

강남을지대학교병원